

원피스드레스형 임부복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시각효과

정 영 아[†], 김 옥 진*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가정과학연구소

The Visual Effect in Combination of Details on the Maternity Clothes of One-piece type

Young-A Jung[†], Ok-Jin Kim*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 Dept. of Clothing & Textiles, Home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bination of details on the maternity clothes of one-piece type through visual evaluation which helps compensating pregnant women's body defects for their more attractive fashion styles.

The data evaluated by a multiple ranking test were analyzed by mean, paired t-test, general linear models procedure and Duncan's multiple ranged test.

The result are as follows :

- 1) The pregnant woman wearing the one-piece dress with notched collar, pleats and whole button looks longer in lower part of bodies, smaller in upper body, slimmer, have less appeared bust and abdomen, more balanced as a Whole than when wearing others. And also, it makes a pregnant woman be seen more refined and simple.
- 2) In case of a pregnant woman, a one-piece dress with notched collar, tuck and whole button makes her look longer in neck, narrower in shoulder, and more active than when wearing others.
- 3) With roll collar, pleats and whole button, it looks taller and more graceful than when wearing others.

KEY WORDS : visual effect, maternity clothes, pregnant women

*전남대학교 가정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

300 Yongbong-dong, Puk-gu, Kwangju, 500-757, Korea.

Tel : 062-530-0314, Fax : 062-530-1349

E-Mail : jya@chonnam.ac.kr

I. 서 언

복식은 소재미, 형태미, 착의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인간 본래의 체형을 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육구 충족을 하게 한다. 특히 복식의 형태미는 체형의 조화적 관계에 의해서 착의미를 표현하게 되며, 인간이 늘 바라는 이상적인 체형에 접근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식의 구조적 조형이 요구되며, 소재미 또한 필수조건이다.

한편, 임신부의 경우 복식조형의 토대가 되는 체형이 임신기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하여 임신 말기에 이르면, 특히 가슴이 커지고 배 부위가 심하게 돌출 되어 뒤로 젖혀져 보이며, 어깨와 등에 군살이 붙고 상완과 대퇴부가 굽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비만해진다.(森 由紀 외 1인 1994, 나미향 1991)

이러한 체형 변화에도 불구하고 임신부가 바라는 신체 이미지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신체 만족도 또한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Fox 1997, Manley 1991)

그러나 임신이라는 상황은 낮아진 신체적 매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떠한 물리적인 노력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부의 체형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의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된다.

특히 임신부의 대부분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고 사회적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인 20, 30대 연령층에 속하며, 현대 사회에서는 임신 중에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상적인 모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임부복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체형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인 임신 8개월째의 임신부를 실험대상으로 선정하여 착의 평가실험을 실시하고 원피스드레스형 임부복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의해 유발되는 물리적, 심리적 시각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임신부의 체형을 보완해 주며 임신부가 추구하는 이미지에 적합한 임부복의 형태를 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의복은 형태, 색채, 재질과 같은 디자인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의복에 대한 지각은 이런 개별적인 디자인 요소에 대한 지각이 통합되어 나타나게 되는 전체적인 형상으로 게스탈트적 법칙에 따라 지각하게 된다. 이는 의복과 인체가 이루어내는 복식조형에 대한 지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의복 디자인의 시각적 특징이 체형의 특징과 상호 작용하면서 군집과 분리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지각된다.

즉 복식조형은 의복과 인체, 의복내의 부분들, 의복과 인접한 주변 공간이 시각적으로 군집되거나 분리되면서 지각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유사한 요인끼리 결합되면 시각효과가 강화되고 유사하지 않은 요인들과 결합되면 시각효과가 약화되거나 상쇄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Delong(1980)은 디테일, 트리밍, 선의 배치, 빛에 의한 음영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의복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이 요인들을 조합함으로써 다양한 시각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Davis(1980)는 의복의 형태를 이루는 구성요인들이 서로 결합되어 상호작용하게 되면 개개의 구성요인들이 지닌 주된 특징이 강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형상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藤原 등(1983)은 의복 디자인의 선의 수평, 수직, 각도에 따라 분할선의 이미지와 착시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최은영(1995)은 격자무늬와 줄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체형의 착시와 이미지 효과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Cummins(1991)는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내배엽형(Endomorph), 중배엽형(Mesomorph), 외배엽형(Ectomorph) 등의 특징적인 체형 결합을 보완하여 이상적 체형에 근접해 보이는 의복의 형태 디자인을 파악하여 제시하였고, 石原久代 등(1989)은 젊은 여성의 다리형태를 유형화하고 길이가 다른 스커트를 착용시켜 실시한 시각평가를 통해 각 다리유형에 적합한 스커트 형태와 길이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류정아 등(1993)은 허리선의 위치, 스커트 길이, 벨트의 폭, 프린세스 라인의 위치와 간격 등에 따라 달라

지각되는 체형의 착시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마르고 키가 커 보이는 착시 효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디자인 요인으로 길이가 긴 스커트, 가는 수직선, 어깨 다아트와 연결된 프린세스 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김태경 등(1995)은 노년기 여성의 체형에서 나타나는 배면 만곡 현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의복 디자인 구성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절개선 보다 개더가 있는 디자인의 시각효과가 더 크다고 하였다.

김옥진(1997)은 블라우스, 슬랙스와 조합된 자켓의 네클라인, 칼라, 의복 길이, 허리맞음새 등을 다르게 조합시킨 실험의복에 대한 비교 시각평가를 통해 중년여성의 체형을 균형감 있어 보이게 하는 의복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된 체형 특성에 적합한 의복의 면분할 및 배치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1. 실험의복의 디자인 변인 선정

실험의복의 디자인 변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 연구(이은영, 1994 등) 결과 임신부의 외출복으로 가장 선호되는 의복 유형으로 나타난 원피스드레스형 임부복의 사진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진자료는 국내 임부복 전문 브랜드인 빼레나탈, 사랑방, 브름스, 아씨방, 오월의 신부, 조이 등의 최근 5년 이내(1993~1998) 발간된 카타로그, 인터넷 사이트인 mami.co.kr /, peacemart.co.kr /, baby mall.co.kr / ninemonth, cybermall.co.kr / 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병원 및 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봄·가을용 임부복으로 한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로부터 형태구성요인의 특징과 출현빈도를 조사한 결과 임부복의 대부분은 허리에 여유분량이 많은 A-Line형으로 실루엣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네클라인·칼라, 주름, 단추 등의 디테일을 이용하여 내부의 형태 디자인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클라인·칼라의 형태를 보면 칼라가 없는 네클라인형, 목을 드러내는 칼라형, 목을 감싸는 칼라형 등이었으며, 롤 칼라(34.5%), 라운드 네클라인(15.6%), 플랫

칼라(13.6%), 너치드 칼라(13.1%) 등의 순서로 출현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름은 있는 경우가 62.7%, 없는 경우가 37.3%로 나타났다으며, 주름은 허리선이 없이 턱(14.1%)에 의해 형성되거나, 하이 웨이스트라인(41%), 로우 웨이스트라인(14.1%), 내추럴 웨이스트라인(7.6%)의 위치에 개더(31.4%), 플리츠(9.7%), 플레어(7.6%)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추는 있는 경우가 50.4%, 없는 경우가 49.2%로 나타났다으며, 단추가 있을 경우 위쪽에 부분적으로 달리거나 전체적으로 길게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는 스트레이트형(52.4%)이 가장 많았고, 옷의 길이는 무릎선±15cm(37.8%)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실험의복 디자인의 변인으로 네클라인·칼라 유형 3종(라운드 네클라인, 너치드 칼라, 롤 칼라), 주름 유형 3종(턱, 개더, 플리츠), 단추 위치 2종(전체, 부분)을 선정하였다.

실험의복의 형태는 3차례의 착의 평가실험과 복식의장 전공 대학원생 10인의 평가 과정을 거쳐 임신부의 변화된 체형을 보완하면서 각 디테일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는 형태 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즉 네클라인·칼라 유형, 단추 위치, 주름 유형을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도록 다양하게 구성한 후, 그 중 임신부의 체형 변화를 가장 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평가받은 형태를 실험의복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턱은 허리선이 없이 굽은 주름으로, 개더와 플리츠는 하이 웨이스트라인의 위치(가슴둘레선 아래 4cm)에 잔주름과 눌린 주름으로 하였고, 12cm(앞길/2)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턱인 경우 4cm 간격으로 좌우 3개씩 6개, 플리츠인 경우 앞중심+9cm의 위치에 좌우 1개씩 2개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패턴은 문화식 원형을 기본으로 착의 모델의 체형에 맞게 보정하였고, 실험의복 유형에 따라 기본 패턴은 동일하되 디자인 변인인 네클라인·칼라, 주름, 단추 등을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디자인 변인 이외의 다른 조건이 동일하도록 소매, 옷의 길이 등은 출현빈도가 높았던 한가지 형태로 통제하여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선정된 실험의복 형태는 디자인 변인이 조합된 18가지로 <그림 1>과 같다.

| 단추유형 네클라인·칼라유형 | | 주름유형 | | |
|-------------------|-------------|---|---|---|
| | | 턱 | 개더 | 플리츠 |
| 전체 단추 | 라운드 네클라인 |  |  |  |
| | 너치드 칼라 |  |  |  |
| | 롤 칼라 |  |  |  |
| 부분 단추 | 라운드 네클라인 |  |  |  |
| | 너치드 칼라 |  |  |  |
| | 롤 칼라 |  |  |  |

〈그림 1〉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

2. 평가자극물 제작

2.1 착의모델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체형특징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시기인 임신 8개월째의 임신부를 실험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착의 모델은 선행연구(나미향, 1991 등)에 제시된 계측치에 근거하여 20대 후반의 임신부 20명을 의도적으로 표집 계측한 후 키, 몸무게, 가슴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끝점사이길이, 등길이 등의 신체치수가 임신 8개월의 평균치수와 가장 유사한 임신부 1명으로 선정하였다.

〈표 1〉 착의 모델의 임신 8개월 신체 치수

(단위 : kg, cm)

| 항 목 | 신체치수 | 항 목 | 신체치수 |
|----------|-------|--------|------|
| 키 | 161.5 | 가슴둘레 | 92.0 |
| 등 길이 | 39.5 | 허리둘레 | 84.0 |
| 팔 길이 | 58.0 | 배 둘레 | 96.5 |
| 어깨끝점사이길이 | 38.5 | 엉덩이둘레 | 99.0 |
| 뒷 품 | 36.0 | 가슴 두께 | 22.5 |
| 앞 품 | 34.5 | 허리 두께 | 19.0 |
| 허리 너비 | 26.5 | 배 두께 | 28.0 |
| 배 너비 | 28.5 | 엉덩이 두께 | 22.0 |
| 몸무게 | 62.5 | 로러지수 | 1.48 |

2.2 실험의복 제작

실험의복은 디자인 변인인 네클라인·칼라 유형, 주름 유형, 단추 위치를 고루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즉 라운드 네클라인, 개더, 부분 단추를 조합한 형태 1벌, 너치드 칼라, 플리츠, 부분 단추를 조합한 형태 1벌, 톨칼라, 터, 전체 단추를 조합한 형태 1벌로서 총 3벌을 제작하였다.

연구 목적상 색상, 소재의 시각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색상은 중 명도, 중 채도의 무채색인 회색, 소재는 선행 연구 및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분석 결과 외출용 임부복 소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로 선정하였다. 실험 의복에 사용된 소재 물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험 의복의 소재 물성

| 항 목 | 물 성 | 항 목 | 물 성 |
|------|----------------------------------|-----|------------------------------|
| 섬유성분 | polyester 100 % | 두께 | 0.45 mm |
| 밀도 | 72×36 /cm | 무게 | 203 g/m ² |
| 인장강도 | warp 29.97 kgf weft 18.53 kgf | 신도 | warp 40.51 % weft 37.46 % |
| 인열강도 | warp 2,777 g weft 1,465 g | 강연도 | warp 8.5 mm weft 6.5 mm |

2.3 자극물 제작

평가용 자극물은 실험의복을 착용한 착의모델을 정면에서 촬영하여 필름을 스캐닝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합성사진으로 제작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험변인 이외의 가외변량(加外變量)을 손쉽게 통제하여 평가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체형을 동일하게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극물 구체적인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3종의 실험의복을 착용하고 정면자세를 취한 모델을 세 방향(정면, 15° 우측 정면, 30° 우측 정면)에서 각 3매씩 총 27매의 칼라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때 착의 모델과 카메라와의 거리가 6 m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삼각대를 고정시켰다. 촬영에는 Cannon EOS-1 50 mm 카메라에 코닥 ETR 필름을 이용하였으며, 배경지 색을 옅은 회색으로 통일하여 Flash Time 1/60초로 촬영하였다.

다음으로 촬영된 슬라이드용 필름을 Epson GT 9500 기종의 스캐너를 이용하여 Color Photo 900 dpi 해상도 조건하에서 400% 확대하여 드림 스캐닝 하였다.

정면사진은 임신부의 신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30° 우측 정면사진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27매의 사진 중 15° 우측 정면사진 9매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에 이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는 해상도 310 dpi의 Power Mackintosh 8500/180 기종 컴퓨터와 Adobe Photoshop 4.0 program을 이용하였고, 스캔 받은 기본사진에 실험 의복을 교체하여 착용시킨 18개의 합성사진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18개의 합성사진을 해상도 720 dpi의 Epson Stylus Color 1520 H를 이용하여 75×210 mm 크기로 출력한 후 95×270 mm 크기의 회색 배경지에 붙인 후 아래에 자극물 번호를 부착하여 평가용 자극물을 완성하였다.

제작된 자극물은 〈사진 1〉, 〈사진 2〉와 같다.

〈사진 1〉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전체 단추)



RTW



NTW



CTW



RGW



NGW



CGW



RP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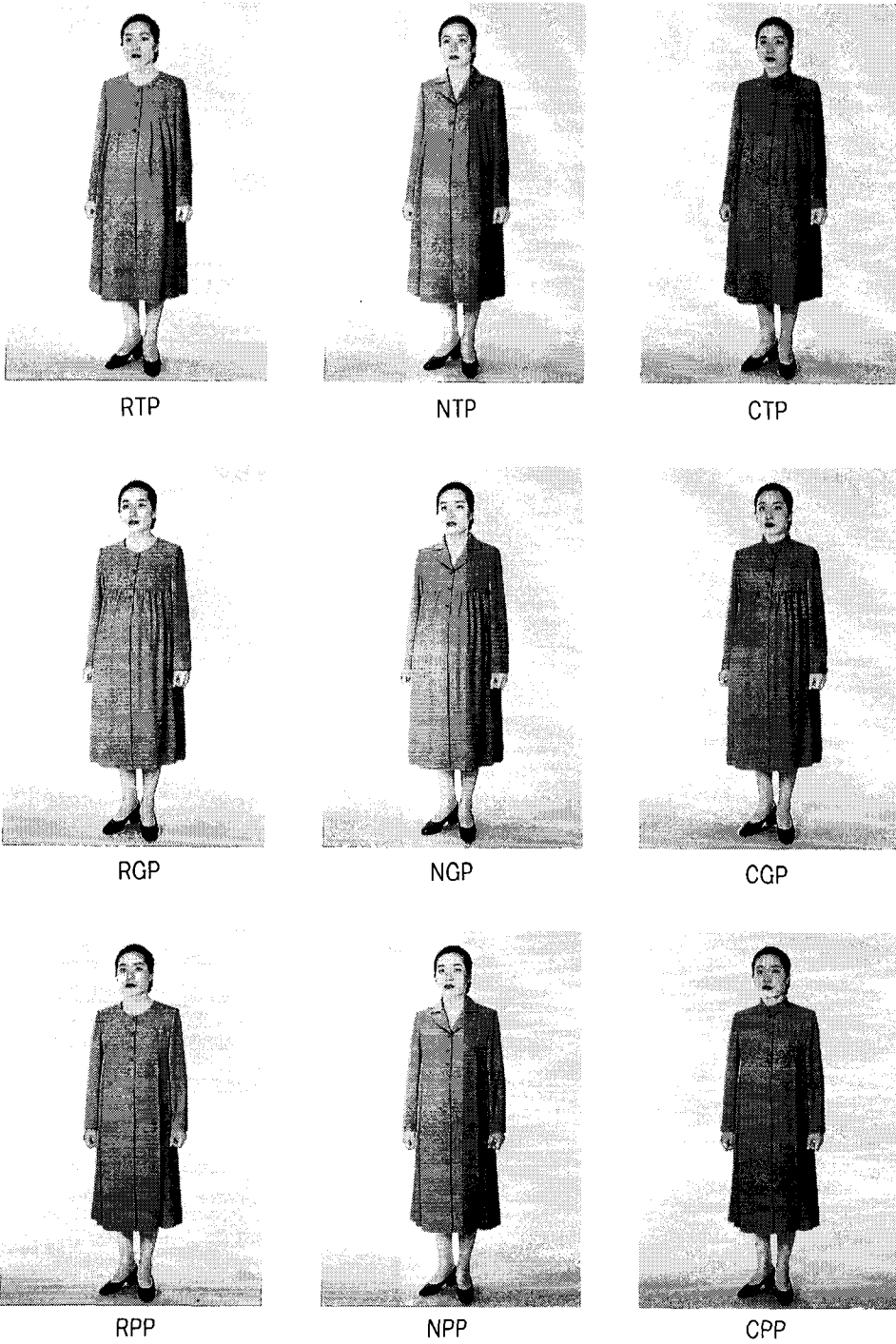


NPW



CPW

〈사진 2〉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부분 단추)



3. 자극물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

실험의복의 시각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물리적 시각효과 측정을 위한 것과 심리적 시각효과 측정을 위한 것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물리적 시각효과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임신 6개월 이상인 임신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1, 2차 예비평가를 통해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허리, 골반, 자세 등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부위별 평가항목을 1개로 조정하여 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심리적 시각효과 측정도구는 임부복을 착용했을 때 나타내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개별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와 자유언어 연상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평가용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내용 중 반복 출현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2차 예비평가를 통해 평가용 자극물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5점 척도로 검토하여 평가치가 높았던 5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4. 평가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지각자의 개인적인 특성(동기/욕구, 기대, 인지유형, 문화적 배경 등) 및 선호도가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시각경험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받아온 전문가를 평가단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평가단은 복식 디자인 및 의복구성을 전공하는 시간강사를 포함한 교수 20인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14인으로 구성되었다.

5. 평가실험 구성 및 방법

평가실험은 네클라인·칼라 유형 3(라운드 네클라인, 너치드 칼라, 롤 칼라)×주름 유형 3(턱, 개더, 플리츠)×단추 위치 2(전체, 부분)의 3원 부분요인 설계(Fractional factorial design)에 따라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평가해야 할 실험의복 디자인의 조합 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조합방법은 2×3^2 유사라틴 방격법(Quasi Latin square design)으로 각 변인이 고루 조합되도록 6개씩

배치하였다. 하나의 실험의복 디자인이 4개의 조합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12개의 조합을 구성하여 비교 평가하게 하였다.

비교 평가는 다점비교순위법(多點比較順位法)을 이용하였고 동일순위를 인정하여 평가하게 하였다. 다점비교순위법은 비교 가능한 디자인을 동시에 보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복 디자인이 평가항목에 근접한 효과를 낼수록 다점을 주는 방법으로 점수를 주어 순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6. 분석 방법

Kendall의 일치성 계수 W(Kendall of concordancy)를 확인한 결과 평가자간의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던 2부를 제외한 32부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형태구성요인에 따른 물리적 시각효과와 심리적 시각효과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다점비교순위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T검정(Paired T-Test),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Duncan의 다중비교(Duncan's multiple ranged test) 분석하였고,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s)을 이용하여 형태구성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시각효과

임신부의 체형을 보완하며 균형 잡혀 보이는 임부복의 형태를 파악하고자 물리적 시각효과에 미친 네클라인·칼라 유형, 주름 유형, 단추 위치 등 형태구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의 물리적 시각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 목이 길어 보이는 효과는 네클라인·칼라 유형에 큰 영향을 받고 다른 형태구성요인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플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너치드 칼라와 조합된 경우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은 목을 감싸는 형태보다 목을 드러내는 형태가 길어 보이게

〈표 3〉 물리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의 영향

| 물리적 시각효과 | 형태구성요인 | 네클라인·칼라 유형 | | | 주름 유형 | | | 단추 위치 | |
|--------------------|--------|------------|-----------|------------|------------|-----------|-----------|--------|------|
| | | 라운드 | 너치드 | 롤 | 턱 | 개더 | 플리츠 | 전체 | 부분 |
| 1. 목이 길어 보인다 | M | 3.95 B | 5.00 A | 1.54 C | 3.48 | 3.43 | 3.57 | 3.56 | 3.43 |
| | F(T) | 1477.98*** | | | 0.48 | | | 1.13 | |
| 2. 어깨가 좁아 보인다 | M | 2.44 C | 5.26 A | 2.78 B | 3.39 | 3.64 | 3.46 | 3.56 | 3.43 |
| | F(T) | 579.69*** | | | 1.71 | | | 1.06 | |
| 3. 가슴이 덜 드러나 보인다 | M | 2.80 C | 4.55 A | 3.13 B | 3.43 B | 3.05 C | 4.00 A | 3.61 | 3.38 |
| | F(T) | 108.53*** | | | 24.24*** | | | 2.04* | |
| 4. 배 부위가 덜 드러나 보인다 | M | 3.28 B | 3.77 A | 3.43 B | 3.53 B | 1.60 C | 5.34 A | 3.64 | 3.35 |
| | F(T) | 6.53** | | | 1757.41*** | | | 2.48* | |
| 5. 상반신이 작아 보인다 | M | 2.99 B | 4.51 A | 2.99 B | 3.07 B | 3.11 B | 4.30 A | 3.54 | 3.45 |
| | F(T) | 93.40*** | | | 54.34*** | | | 0.83 | |
| 6. 하반신이 길어 보인다 | M | 3.41 | 3.57 | 3.51 | 3.47 B | 1.80 C | 5.20 A | 3.47 | 3.52 |
| | F(T) | 0.67 | | | 985.16*** | | | -0.40 | |
| 7. 키가 커 보인다 | M | 3.02 C | 3.43 B | 4.03 A | 3.50 B | 1.95 C | 5.02 A | 3.67 | 3.32 |
| | F(T) | 26.95*** | | | 508.38*** | | | 3.07** | |
| 8. 덜 뚱뚱해 보인다 | M | 3.26 B | 3.75 A | 3.48 AB | 3.36 B | 1.70 C | 5.41 A | 3.65 | 3.34 |
| | F(T) | 5.93** | | | 1665.15*** | | | 2.66** | |
| 9. 균형 잡혀 보인다 | M | 3.21 B | 3.94 A | 3.34 B | 3.87 A | 2.48 B | 4.12 A | 3.46 | 3.53 |
| | F(T) | 15.80*** | | | 94.81*** | | | -0.61 | |

* p<0.05 ** p<0.01 *** p<0.001 M = Mean F(T) = F-Value, T-Value

〈표 4〉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의 물리적 시각효과 차이

| 실험의복 | 물리적 시각효과 | 라운드 네클라인 | | | | | | 너치드 칼라 | | | | | | 롤 칼라 | | | | | |
|--------------------|----------|----------|------|------|------|------|------|--------|------|------|------|------|------|------|------|------|------|------|------|
|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 |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 1. 목이 길어 보인다 | Mean | 4.02 | 3.88 | 3.98 | 3.73 | 4.03 | 4.04 | 5.15 | 4.86 | 4.90 | 4.93 | 5.13 | 5.04 | 1.57 | 1.42 | 1.62 | 1.44 | 1.63 | 1.54 |
| | Rank | 9 | 11 | 10 | 12 | 8 | 7 | 1 | 6 | 5 | 4 | 2 | 3 | 15 | 18 | 14 | 17 | 13 | 16 |
| 2. 어깨가 좁아 보인다 | Mean | 2.41 | 2.28 | 2.57 | 2.70 | 2.46 | 2.23 | 5.44 | 4.96 | 5.33 | 5.27 | 5.29 | 5.26 | 2.78 | 2.45 | 2.85 | 3.08 | 2.87 | 2.68 |
| | Rank | 16 | 17 | 13 | 11 | 14 | 18 | 1 | 6 | 2 | 4 | 3 | 5 | 10 | 15 | 9 | 7 | 8 | 12 |
| 3. 가슴이 덜 드러나 보인다 | Mean | 2.87 | 2.52 | 2.62 | 2.12 | 3.45 | 3.21 | 4.52 | 4.44 | 4.07 | 4.07 | 5.16 | 5.07 | 3.31 | 2.95 | 2.94 | 2.45 | 3.56 | 3.56 |
| | Rank | 14 | 16 | 15 | 18 | 9 | 11 | 3 | 4 | 5 | 5 | 1 | 2 | 10 | 12 | 13 | 17 | 7 | 7 |
| 4. 배 부위가 덜 드러나 보인다 | Mean | 3.56 | 3.16 | 1.53 | 1.23 | 5.12 | 4.98 | 3.91 | 3.61 | 2.08 | 1.66 | 5.83 | 5.56 | 3.64 | 3.31 | 1.65 | 1.46 | 5.36 | 5.18 |
| | Rank | 10 | 12 | 16 | 18 | 5 | 6 | 7 | 9 | 13 | 14 | 1 | 2 | 8 | 11 | 15 | 17 | 3 | 4 |
| 5. 상반신이 작아 보인다 | Mean | 2.71 | 2.39 | 2.67 | 2.52 | 3.82 | 3.79 | 4.26 | 3.93 | 4.03 | 4.17 | 5.41 | 5.27 | 2.68 | 2.44 | 2.50 | 2.80 | 3.80 | 3.71 |
| | Rank | 12 | 18 | 14 | 15 | 7 | 9 | 3 | 6 | 5 | 4 | 1 | 2 | 13 | 17 | 16 | 11 | 8 | 10 |
| 6. 하반신이 길어 보인다 | Mean | 3.45 | 3.39 | 1.65 | 1.82 | 4.97 | 5.09 | 3.53 | 3.55 | 1.88 | 1.76 | 5.37 | 5.32 | 3.47 | 3.44 | 1.68 | 2.03 | 5.16 | 5.28 |
| | Rank | 10 | 12 | 18 | 15 | 6 | 5 | 8 | 7 | 14 | 16 | 1 | 2 | 9 | 11 | 17 | 13 | 4 | 3 |
| 7. 키가 커 보인다 | Mean | 3.12 | 2.73 | 1.60 | 1.50 | 4.71 | 4.42 | 3.71 | 3.18 | 2.14 | 1.68 | 5.27 | 4.60 | 4.18 | 4.08 | 2.52 | 2.28 | 5.73 | 5.39 |
| | Rank | 11 | 12 | 17 | 18 | 4 | 6 | 9 | 10 | 15 | 16 | 3 | 5 | 7 | 8 | 13 | 14 | 1 | 2 |
| 8. 덜 뚱뚱해 보인다 | Mean | 3.35 | 3.06 | 1.60 | 1.39 | 5.10 | 5.01 | 3.76 | 3.39 | 2.17 | 1.73 | 5.91 | 5.52 | 3.54 | 3.06 | 1.73 | 1.59 | 5.61 | 5.33 |
| | Rank | 10 | 11 | 16 | 18 | 5 | 6 | 7 | 9 | 13 | 14 | 1 | 3 | 8 | 11 | 14 | 17 | 2 | 4 |
| 9. 균형 잡혀 보인다 | Mean | 3.29 | 3.65 | 2.32 | 2.50 | 3.59 | 3.87 | 4.40 | 4.33 | 2.59 | 2.84 | 4.85 | 4.64 | 3.75 | 3.83 | 2.32 | 2.32 | 4.01 | 3.81 |
| | Rank | 12 | 10 | 16 | 15 | 11 | 6 | 3 | 4 | 14 | 13 | 1 | 2 | 9 | 7 | 16 | 16 | 5 | 8 |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너치드 칼라는 꺾임선을 따라 V자형을 이루어 목과 함께 가슴 부위를 드러나 보이게 하여 시선이 가슴부위까지 연결되기 때문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롤 칼라와 조합된 경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선의 흐름이 목 부위에서 차단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는 네클라인·칼라 유형에 큰 영향을 받고 다른 형태구성요인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개더/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너치드 칼라와 조합된 경우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은 어깨선을 분할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라운드 네클라인은 칼라가 없으므로 목선과 어깨선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어깨가 넓어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슴이 덜 드러나 보이는 효과는 네클라인·칼라 유형, 주름 유형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단추 위치의 영향도 약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너치드 칼라와 조합된 경우 대부분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칼라의 형태가 가슴부위의 면적을 분할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배 부위가 덜 드러나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고 네클라인·칼라 유형, 단추 위치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롤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폴리츠와 조합된 경우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름의 수가 작고 늘린 형태이므로 시선이 배부위로 가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공간과 스케일이 큰 너치드 칼라가 조합되면 칼라가 달린 목 부위나 얼굴로 시선을 모으게 되어 효과가 상승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개더와 조합된 경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배 부위에 형성되는 많은 주름수가 시각적 디테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5) 상반신이 작아 보이는 효과는 네클라인·칼라 유

형, 주름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6) 하반신이 길어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다른 형태구성요인의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롤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폴리츠와 조합된 경우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름선이 뚜렷하고 주름의 수효가 작아 시선을 수직방향으로 강하게 유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개더와 조합된 경우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불규칙하게 형성된 많은 주름이 가로 방향의 면적을 더 느끼게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7) 키가 커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 네클라인·칼라 유형, 단추 위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롤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롤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폴리츠와 조합된 경우 대부분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름선이 뚜렷하여 세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며, 여기에 롤 칼라가 조합되면 그 형상 높이만큼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8) 덜 뚱뚱해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의 영향을 크게 받고 네클라인·칼라 유형, 단추 위치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롤 칼라/폴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9) 균형 잡혀 보이는 효과는 네클라인·칼라 유형, 주름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폴리츠/전체 단추, 너치드 칼라/폴리츠/부분 단추,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너치드 칼라와 폴리츠가 조합된 경우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폴리츠가 돌출된 배 부위를 덜 드러나게 하면서 면적이 넓은 너치드 칼라가 상체의 시각적 무게를 크게 느끼도록 조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물리적 시각효과에 있어 형태구성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임신부가 원피스트레스를 착용할 경우, 가슴과 배 부위가 덜 드러나 보이며, 상반신이 작아 보이고 하반신도 길어 보이며, 덜 뚱뚱해 보이고 균형 잡혀 보이는 등의 체형보완을 위해서는 너치드 칼라와 플리츠 그리고 전체 단추가 조합된 형태가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목이 길어 보이고 어깨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너치드 칼라와 턱 그리고 전체 단추가 조합된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롤 칼라와 플리츠 그리고 전체 단추가 조합된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목, 어깨, 가슴 등의 상반신 부위의 시각효과에는 네클라인과 칼라가 큰 영향을 미치며, 목과 어깨 부위를 제외한 하반신 및 전체적인 체형의 보완효과에는 주름 유형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추는 가슴, 배, 키, 비만감 등의 시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으로서 네클라인·칼라, 주름에 비해 물리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심리적 시각효과

임신부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입부복의 형태를 밝히기 위하여 심리적 시각효과에 미친 네클라인·칼라 유형, 주름 유형, 단추 위치 등 형태구성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고,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의 심리적 시각효과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1) 단정해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과 네클라인·칼라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롤 칼라/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플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 품위 있게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과 네클라인·칼라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롤 칼라/플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롤 칼라/턱/부분 단추의 조합, 롤 칼라/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3)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과 네클라인·칼라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

<표 5> 심리적 시각효과에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의 영향

| 심리적 시각효과 | 형태구성요인 | 네클라인·칼라 유형 | | | 주름 유형 | | | 단추 위치 | |
|--------------|--------|------------|-----------|-----------|-----------|-----------|-----------|-------|------|
| | | 라운드 | 너치드 | 롤 | 턱 | 개더 | 플리츠 | 전체 | 부분 |
| 1. 단정해 보인다 | M | 2.90 B | 3.75 A | 3.83 A | 3.75 B | 2.17 C | 4.55 A | 3.45 | 3.54 |
| | F(T) | 28.13*** | | | 221.41*** | | | -0.78 | |
| 2. 품위 있게 보인다 | M | 2.43 C | 3.85 B | 4.20 A | 3.93 A | 2.56 B | 3.99 A | 3.51 | 3.48 |
| | F(T) | 109.91*** | | | 76.38*** | | | 0.76 | |
| 3. 세련되어 보인다 | M | 2.92 B | 3.70 A | 3.87 A | 3.94 B | 2.18 C | 4.36 A | 3.49 | 3.50 |
| | F(T) | 27.03*** | | | 189.83*** | | | -0.09 | |
| 4. 활동적으로 보인다 | M | 3.59 B | 4.17 A | 2.73 C | 3.95 A | 3.35 B | 3.18 B | 3.43 | 3.56 |
| | F(T) | 58.99*** | | | 16.76*** | | | -1.03 | |
| 5. 여성스러워 보인다 | M | 3.99 A | 2.81 C | 3.69 B | 4.14 B | 4.36 A | 2.00 C | 3.47 | 3.52 |
| | F(T) | 40.56*** | | | 277.44*** | | | -0.45 | |

* p<0.05 ** p<0.01 *** p<0.001 M = Mean F(T) = F-Value. T-Value

〈표 6〉 형태구성요인 조합에 따른 실험의복의 심리적 시각효과 차이

| 실험의복 | 심리적 시각효과 | 라운드 네클라인 | | | | | | 너치드 칼라 | | | | | | 롤 칼라 | | | | | |
|--------------|----------|-------------|-------------|-------------|-------------|-------------|-------------|-------------|-------------|-------------|-------------|-------------|-------------|-------------|-------------|-------------|-------------|-------------|-------------|
|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턱 | | 개더 | | 플리츠 | |
| |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전체 | 부분 |
| | | R T W | R T P | R G W | R G P | R P W | R P P | N T W | N T P | N G W | N G P | N P W | N P P | C T W | C P P | C G W | C G P | C P W | C P P |
| 1. 단정해 보인다 | Mean | 3.04 | 3.28 | 1.70 | 1.52 | 3.87 | 3.97 | 3.93 | 4.08 | 2.40 | 2.32 | 4.95 | 4.84 | 3.93 | 4.27 | 2.47 | 2.62 | 4.70 | 4.97 |
| | Rank | 12 | 11 | 17 | 18 | 10 | 7 | 8 | 6 | 15 | 16 | 2 | 3 | 8 | 5 | 14 | 13 | 4 | 1 |
| 2. 품위 있게 보인다 | Mean | 2.72 | 2.92 | 1.50 | 1.60 | 2.94 | 2.86 | 4.34 | 4.39 | 2.86 | 2.81 | 4.59 | 4.14 | 4.54 | 4.68 | 3.28 | 3.30 | 4.82 | 4.60 |
| | Rank | 16 | 12 | 18 | 17 | 11 | 13 | 7 | 6 | 13 | 15 | 4 | 8 | 5 | 2 | 10 | 9 | 1 | 3 |
| 3. 세련되어 보인다 | Mean | 3.28 | 3.32 | 1.77 | 1.85 | 3.63 | 3.63 | 4.40 | 4.08 | 2.12 | 2.14 | 4.68 | 4.77 | 4.25 | 4.31 | 2.52 | 2.69 | 4.73 | 4.71 |
| | Rank | 12 | 11 | 18 | 17 | 9 | 9 | 5 | 8 | 16 | 15 | 4 | 1 | 7 | 6 | 14 | 13 | 2 | 3 |
| 4. 활동적으로 보인다 | Mean | 3.86 | 4.17 | 3.46 | 3.53 | 3.26 | 3.23 | 4.76 | 4.55 | 3.90 | 3.98 | 3.77 | 4.06 | 3.12 | 3.25 | 2.54 | 2.71 | 2.26 | 2.52 |
| | Rank | 7 | 3 | 10 | 9 | 11 | 13 | 1 | 2 | 6 | 5 | 8 | 4 | 14 | 12 | 16 | 15 | 18 | 17 |
| 5. 여성스러워 보인다 | Mean | 4.48 | 4.77 | 4.87 | 4.94 | 2.54 | 2.38 | 3.22 | 3.58 | 3.58 | 3.58 | 1.47 | 1.43 | 4.33 | 4.43 | 4.59 | 4.61 | 2.18 | 1.97 |
| | Rank | 6 | 3 | 2 | 1 | 13 | 14 | 12 | 9 | 9 | 9 | 17 | 18 | 8 | 7 | 5 | 4 | 15 | 16 |

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롤 칼라/플리츠/전체 단추의 조합, 롤 칼라/플리츠/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4) 활동적으로 보이는 효과는 주름 유형과 네클라인·칼라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너치드 칼라/턱/전체 단추의 조합, 너치드 칼라/턱/부분 단추의 조합, 롤 칼라/턱/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5)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 주름 유형과 네클라인·칼라 유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라운드 네클라인/개더/부분 단추의 조합, 라운드 네클라인/개더/전체 단추의 조합, 라운드 네클라인/턱/부분 단추의 조합 순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시각효과에 있어 형태구성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임신부가 원피스드레스를 착용할 경우, 단정하며, 품위 있고 세련되어 보이기 위해서는 롤 칼라, 플리츠가 조합된 형태가 효과적이며, 활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너치드 칼라와 턱이 조합된 형태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스러워 보이기 위해서는 라운드 네클라인과 개더가 조합

된 형태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상과 같은 결과는 네클라인과 칼라 그리고 주름이 심리적 시각효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인 반면, 단추는 영향력이 미약하여 시각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단추가 다른 형태구성요인에 비해 크기가 작아 시선의 강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V. 결 어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체형을 보완하고 임신부가 원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각효과를 지닌 임부복의 형태구성요인 및 그 조합을 밝히기 위해 원피스드레스형 임부복의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시각효과와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네클라인과 칼라는 목, 어깨, 가슴 등 상반신 부위의 물리적 시각효과와 전반적인 심리적 시각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으로서 상반신의 체형보완과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네클라인과 칼라의 조합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주름은 목과 어깨 부위를 제외한 가슴, 배, 하반신, 비만감 등의 물리적 시각효과와 전반적인 심리적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구성요인으로서 배 부위를 포함한 전체적인 체형보완과 원하는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주름의 조합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단추는 심리적 시각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태구성요인이나 배, 키, 비만 등의 체형 보완을 위해서는 단추의 배열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시중 임부복에서 출현빈도가 높지 않았던 너치드 칼라, 플리츠가 임신부의 체형을 보완하는 효과, 단정하며 품위 있고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에 적합한 형태구성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출현빈도가 높았던 개더는 여성스러워 보이는 효과에 적합한 형태구성요인이었으나 체형의 보완효과에는 적합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나 임부복 디자인 계획 및 착용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5) 임신부가 원하는 물리적, 심리적 시각효과를 만족시키는 형태구성요인의 조합을 제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슴과 배 부위가 덜 드러나 보이고 상반신이 작아 보이며, 하반신도 길어 보이고 덜 뚱뚱해 보이고 균형 잡혀 보이는 등 전체적인 체형의 보완효과를 나타 내면서 단정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너치드 칼라와 플리츠 그리고 전체 단추가 조합된 형태가 효과적이다.

둘째, 키가 커 보이는 효과, 품위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플리츠와 전체 단추 그리고 롤 칼라가 조합된 형태가 바람직하다.

셋째, 목이 길어 보이고 어깨가 좁아 보이며 활동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너치드 칼라와 턱 그리고 전체 단추가 조합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임신부가 원피스드레스를 선택할 때, 그리고 바라는 물리적 시각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임부복 디자인과 임신부의 의복선택 및 착용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증적인 기초자료로서, 상황과 목적에 알맞게 의복의 형태구성요인을 배치, 조합함으로써 임신 중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단정하고 세련된 자태로 보다 자신감 있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참 고 문 헌

1. 김옥진, "중년여성의 체형에 적합한 의복형태와 면 분할 및 배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7), 1997.
2. 김태경·이경희·박정순, "노년기 여성의 배면 만곡도 감소효과를 위한 의복디자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3), 1990.
3. 나미향, 「의복설계를 위한 임부체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4. 류정아·임원자, "의복디자인의 선이 체형에 미치는 착시효과", *한국의류학회지*, 17(3), 1993.
5. 이은영, 「임부복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직업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6. 최은영,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 *복식 제24호*, 1995.
7. 岡部和代·山名信子·山本和枝 "成人女子シルエットの体つきの評価と腹装 シルエットとの 関連について",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36(3), 1995.
8. 渡辺登子·川本榮子·中川早苗, "服装におけるイメージとデザインとの 関連について(第1報): イメージを構成する主要因子とデザインとの 関連", *日本家政學會誌*, 42(5), 1991.
9. 木岡悦子·森 由紀, "妊娠後期の衣服設計に関する基礎的研究 (第2報): マタニティドレスの適合性に関する實驗的研究", *日本家政學會誌*, 45(2), 1994.
10. 森 由紀·木岡悦子, "妊娠後期の衣服設計に関する基礎的研究 (第1報): 妊娠後期の體型特徴について", *日本家政學會誌*, 45(2), 1994.
11. 條原 惠里子·加藤雪枝·栢山勝子, "被服デザインにける分割線の効果", *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24(4), 1983.
12. 和田陽平, 大山正, 今井省吾, 編, 『感覺+知覺 心理學ハンドブック』, 東京: 誠信書房, 1985.
13. Bonnie D. Belleau, Kimberly A. Miller, Gabie E. Church, "Maternity Career Apparel and Perceived Job Effectivenes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6(2), 1988.

14 한국가정과학회지 2(2) : 49-62, 1999
Korean J. of Human Ecology 2(2) : 49-62, 1999

14. Cummins, Charlotte A., 『Visual perceptions of clothing designed for specific body types』, The graduate College University of Wisconsin-Stout, December 1991.
15. Davies K., Wardle J., "Body Image and Dieting in Pregnancy",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8(8), 1994.
16. Davis, Marian L., 『Visual Design in Dress』,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 New Jersey, 1980.
17. DeLong, M. R. . 『The Way We Look』, Iowa State University Press, Ames, 1987.
18. DeLong, M. R., "Clothing and Aesthetics: Perception of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5(4), 1977.
19. Fox P., Yamaguchi C., "Body-Image Change in Pregnancy - A Comparison Normal-Weight and Overweight Primigravidas", *Birth-Issues in Prenatal Care*, 24(1), 1997.
20. Goldstein E. Bruce, 『Sensation & Perception』, Brooks/ Cole Publishing Co., 1996, pp.183-194.
21. Greer, R. W., 『Apparel Buying Practices of Pregnant Women and Their Reported Satisfaction with available Maternity Wear』, Ph. D., Texas Woman'S Univ., 1988.
22. Gregory Richard L., "Visual Illusions", *Scientific American*, 219(5), 1968
25. Lamb, Jane M. · Kallal, M. Jo., "A Conceptual Framework For Apparel Desig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0(#2), 1992
23. Lix, Lisa Marie, 『Maternity employment apparel purchase decisions of pregnant working women』, M. SC., The University of Manitoba(Canada), 1991.
24. Llewellyn A. M., Stowe Z. N., Nemeroff C. B., "Depression during pregnancy and the puerperium",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8:26-32, Suppl, 15, 1997.
25. Manley, Janine W., 『Self-worth,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available selection for those who wear different-size maternity clothing』, Ph. D.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1991.
26. Sailor P. J., "Perception of line in Clothing", *Perception & Motor Skill*, 33(3), 1971.